

# 6월 모의평가 4일 시행

### 도내 고3 재학생 · 졸업생 1만7472명 응시... 고 1~2 학력평가도 같은 날 치러져

6월 모의평가가 4일 도내 12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 전북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 7,472명이 응시한다. 재학생은 1만 5,876명, 졸업생은 1,596명이다.

6월 모의평가는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첫 공식 평가로 고3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다.

평가영역은 실제 수능과 동일한 6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치러진다.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

입된 시험체제를 유지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및 EBS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평가 결과는 7월 1일 발표될 예정이며, 개인별 성적통지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영역 및 과목별로 기재된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만 기재되며,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지는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도내 104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만4,693명과 2학년 1만 4,872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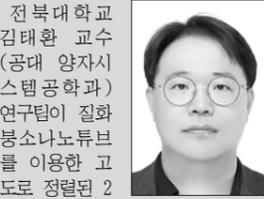
특히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를 적용해 시행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공식 평가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자신의 학업 성취도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수능처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차세대 나노소재 구조 세계 최초 구현

### 전북대 김태환 교수팀, 질화붕소나노튜브 자기조립 초격자 구조 제작 성공



김태환 교수



전상우 박사

전하를 음전하로 정밀 개질했다. 이를 통해 중심 직사각형 대칭의 삽입된 층상 구조와 원통형 마이셀을 삼각 배열로 둘러싼 육각형 구조(AB3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엑스선 소각산란 실험을 통해 제작된 초격자 구조체의 정확한 구조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전상우 박사(졸업생, 공대 플라즈마 및 양자빔 응용공학과)는 "질화붕소나노튜브의 정전기적 자기조립을 통해 2차원 이종 초격자 구조체를 세계 최

초로 구현했다"며 "압전소재, 고열전도율 전기절연체, 중성자 차폐체 등 차세대 소재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환 교수는 "이번 성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질화붕소나노튜브 복합체를 손쉽게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이를 통해 고성능 나노소재 개발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화붕소나노튜브는 우수한 전기적·기계적·열적 특성과 중성자 차폐 특성을 보유한 차세대 나노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나노튜브를 고밀도로 정렬된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 응용에 한계가 있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IB 2차 특강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도내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2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IB 학교를 포함한 초·중·고교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은 중학교 과정인 IB MYP(Middle Years Programme)의 교육적 가치와 실천 방안 중심으로 이뤄졌다.

IB MYP는 개념적 이해와 체계성을 갖춘 평가 체계를 강조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북교육청은 IB MYP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탐구 중심의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대구중앙고 이승민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IB MYP 수업과 평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이 교사는 대구중앙중학교에서 IB MYP 월드스쿨 코디네이터를 역임하며 IB 프로그램을 현장에 안착시킨 경험을 갖고 있어 교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전북교육청의 ESG 실천 방침에 따라 서책형 자료집 대신 보안이 적용된 PDF를 제공하고, 탐블러 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IB MYP 프로그램의 실제 수업·평가 사례를 접함으로써 교원의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전북의 수업혁신 모델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다른오름 '풍년1979'

## 전주대 기술지주 자회사 막걸리, IWSC 브론즈 수상

### 다른오름 '풍년1979', 한국 전통 막걸리 세계적 경쟁력 입증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다른오름이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인 '2025 국제 와인 앤 스피릿대회(IWSC)'에서 자사 프리미엄 막걸리 제품인 '풍년1979'로 브론즈(동상)를 수상하며 한국 전통 막걸리의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에 따르면 '풍년1979'는 1970년대 시골 마을에서 마시던 막걸리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전통주로, 순수 국내산 쌀 100%를 원료로 사용하고, 전통 시루 증자 및 자연 발효 공정을 고수한 것이 특징이다.

수상작은 단맛을 절제하고 텁텁함을 줄인 깔끔하고 탄백한 맛에, 자연 탄산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풍미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아로마에서는 달콤한 시트러스 향, 텍스처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 마무리는 상큼한 파니시가 어우러지며, 복합적이고 정제된 맛 프로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IWSC에서 막걸리 제품 중 수상은 '풍년1979'가 유일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라이스 와인의 품질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른오름 김지용 대표(전주대 농식품경영학과 교수)는 "막걸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라이스 와인"으로, 좋은 원료와 정직한 제조 방식, 그리고 전통 발효 기술만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순수한 재료와 학술 기반의 전통 양조 기술로 국내외 소비자들과 친밀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IWSC는 영국 런던에서 매년 개최되며, 세계 각국에서 출품된 수천 개의 주류를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평가하는 국제 주류 품평회다.

/장은성 기자

# 친환경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성공

### 전북대 강재욱 교수팀 등... 친환경 용매 활용 잉크젯 프린팅 공정 결합



강재욱 교수



김동형 박사

점첨가제(DMD)를 조합해 친환경성과 안정성이 높은 페로브스카이트 잉크를 개발한 것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개발된 잉크를 잉크젯 프린팅 공정으로 대기 중에서 50mm×50mm 이상의 대면적에 두께 편차를 3% 이하의 박막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공정에서 문제가 됐던 잉크 안정성, 커피링 현상(coffee-ring effect), 결정립 성장 제어 등 여러 기술적 난제를 동시에 극복하고, 기존 스피ن 공정에 비해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유해 용매 대신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용매( $\gamma$ -valerolactone, GVL)와 고비

조가 가능하며, 최대 셀 효율 17.78%, 미니 모듈 효율 13.14%를 달성했다. 장기 안정성에서도 2개월 반 이상 성능의 98%를 유지하는 우수한 내환경 특성을 입증했다.

강재욱 교수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은 친환경적이며 저비용으로 대면적 제조가 가능해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기술로 각광받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잉크젯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협력으로 실용화 가능성을 한단계 높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형 박사는 "향후 대면적 유리 기반을 이용한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건축 소재 개발에도 도전할 계획"이라며 연구 확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한국전력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개념기반 탐구수업 초등 실천사례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0일 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유항검출에서 학생의 질문과 사고력이 살아나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실천 사례 탐색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초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3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는 제주 영평초등학교의 김민영 교사가 IB월드스쿨 지도 경험을 살려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31일에는 전북교육청 창조나래관 회의실에서 사회 및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단원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습형 연수가 진행됐다.

특히 단원 설계 입문을 경험하게 되는 실습형 연수는 20명 가량의 사전 모집에 87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핵심 질문을 통해 기존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 연구에서 핵심 아이디어로 수업 설계의 관점을 넓히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할 수 있는 탐구 중심 활동을 하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시험을 앞두고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 전북대, 식물검역관 시험 대비 집합교육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시험을 앞두고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합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식물검역 업무 수행 자격 부여를 위해 매년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대비한 것으로, 2023년부터 전북대 식물병역대학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검역본부 신입 직원 48명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교육생 2명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0~30일 2주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식물병역법령, 수출입 검역제도, 병해충 진단, 소독장비 사용법, IMO 국경검사 등 총 31개 과목으로 구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 수료생들은 오는 13일 자격시험에 응시하며, 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국가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받아 항만, 공항, 내륙 검역현장에 배치된다. 이들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은성 기자

# 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힘 모아'

### 전북교육청, 전북자치도·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와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0일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 및 바이오 분야 진로탐색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청,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게 목적이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산하기관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예산

지원, 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 운영 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또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바이오 3핵 주제 기반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의 기획, 운영, 인프라 조성을 맡는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교 대상 프로그램 연계, 예산 지원, 교육과정과의 연계 협조, 참여 학생 모집 등을 담당한다.

특히 '청소년 바이오 진로캠프'와 찾아가는 바이오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과 학교를 적극 연계하고, 보다 많은 학생과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군사학과 졸업생 조세림 소위, 해군참모총장 표창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졸업생인 조세림(2021학번) 소위가 지난달 30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38기 해군 및 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졸업한 후 해군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한 조세림 소위는 체력단련과 주특기, 개인회기, 리더십, 소부대 전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장교양성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다. 특히 초급장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아 동기생 중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조세림 소위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훈련 경험이 해군 장교 교육과정에서도 큰 힘이 됐다"며 "해군 장교로서 국가에 봉사하며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관식에서는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및 군사안보학과 출신 장교 44명이 임관했으며, 이 중 해군 소위는 16명, 해병대 소위는 28명이다.

/장은성 기자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 전주대, 도내 18년 연속... 대입 책무성 등 위한 기본사업 추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교육부 주관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정·투명하게 대입전형 운영에 학생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주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고교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 확대, 대입 책무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

업'을 시작으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18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입학전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